

# 해풍 맞은 친환경 '아로니아' 본격 출하



강진군 칠량면 영계마을 밭에서 고장규씨가 구슬땀을 흘리며 탐스러운 아로니아 수확이 한창이다.

강진군 친환경 아로니아 연구회 회원들이 지난 가뭄과 장마를 이겨내고 본격적인 출하에 앞서 수확 준비중에 있다. 칠량면 영계마을 밭에서 고장규씨는 폭염이 무색할정도로 구슬땀을 흘리며 탐스러운 '아로니아' 수

확 작업이 한창이었다. 아로니아 재배 5년차인 고씨는 "상반기에 기상이 좋지 않아 걱정을 했지만 연구회 구성원끼리 정기적인 과제 연찬을 통해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1천700평에서 5톤을 생

## 강진군, 고기능성 알려지며 직거래 급증 가공식품 제작으로 부가가치 높일 계획

산, 5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강진 친환경 아로니아 연구회는 지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생산적 연구단체 지원을 통해 결성했다.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함께 연구하며 내실을 다져 왔다. 올해는 '강진해풍 영농조합법인' 창립해 군에서 운영하는 농산업창업 지원센터를 이용, 본격적인 가공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로니아는 현존하는 과일중 안토시아닌(640mg/100g)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딸기의 23배, 포도의 10배, 블루베리의 4배 이상을 함유해 항노화, 면역력 강화, 시력 회복에 효능이

있어 건강식품 시장에서 '슈퍼푸드'로 단연 손꼽히고 있다. 특히 강진산 아로니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천연의 해풍을 맞고 자라 특유의 고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직거래량이 늘고 있다. 틈새 소득작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대근소장은 "아로니아는 노화억제 및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입증된데다 소비가 많아지고 있지만 짧은 맛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 생산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최재영 기자



## 목포실내수영장, 야간 연장 운영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9월초부터 강습 1회 더 늘려

목포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학생에게 방과 후 수영연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내 수영장을 야간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현행 오전 5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에서 저녁 8시까지로 야간에 2시간이 늘어난다. 토·일요일은 오전 5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로 종전과 동일하다. 시는 지난 2014~2015년 성수기인 7·8월 하절기에 2시간 연장해 저녁 8시까지 운영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중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연장 건의가 지속됨

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향후 참여율이 좋을 경우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수영강습은 4회에서 5회로 1회 추가된다. 시는 8월 중 모집 공고를 거쳐 수영강사를 확보하는 대로 9월초부터 연장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목포실내수영장은 6,418㎡ 규모에 10레인(25X50m)을 갖춘 공인수영장으로 매년 15만 여명이 이용하며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각종 수영대회를 수차례 개최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영암군 금정면 "복지사각지대는 없다"

관내 한부모가정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영암군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제기·박종운)위원들과 면사무소직원 및 자원봉사회원들은 지난 19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한부모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 해 주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지적장애 2급 아들 2명과 고령의 친정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현재 거주중인 집은 친척집을 무료 임대한 것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보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3일동안 도배·장



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집안 곳곳에 있는 쓰레기와 내·외부 청소를 맡김해 쾌적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제기·박종운)는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강원훈 기자

## 해남군,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관내 48% 면적 무인헬기 등 이용해 일손절감



무인헬기를 이용하면 1일 최대 60ha까지 방제가 가능해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4,400만원(자부담 50%)을 투입해 ha당 3만원씩 총 240ha, 6만원의 방제기기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관내 친환경 벼 재배 단지의 병해충 예방 및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공동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관내 공동방제 대상지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의 48%에 해당되는 63개 단지, 1,200ha로 오는 8월까지 무인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무인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는 광역방제가 가능한 2ha 이상의 지역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공시하는 유기농업자재를 활용해 도열병 방제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병충해 공동방제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 4,367ha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66억 6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친환경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곡성군, 농산물 판매 쇼핑몰 운영 교육

정보화농업인연구회 전자상거래 역량강화 교육

곡성군은 지난 7월 24일부터 총 8회에 걸쳐 곡성정보화 농업인연구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에 10회에 걸쳐 실시한 무료쇼핑몰 제작 교육에 참여했던 회원들에게 쇼핑몰 운영에 따른 보안 사항과 고객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2008년에 조직된 곡성 정보화농업인연구회원 대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쇼핑몰은 업체를 통해 상품을 수정 보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스토어팜으로 전환하고 있다.

벌써 상반기 교육으로 곡성 농산물 증가를 장터인 기차마을 장터에 6명이 입점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관계자는 "매년 5월이면 세계 장미축제로 인해 군 홈페이지에 탑재된 기차마을 장터의 이용자수가 평상시 보다 20%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화농업인연구회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제작 교육을 통해 다양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이벤트를 통해 농산물을 홍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지역광광역시장조성본리빌 전인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양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문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문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여수 010-6661-6669	구례 010-2325-8439	영광 010-3611-3081
나주 010-3625-6665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61-552-5005
목포 010-7344-0200	장성 010-5287-7711	하당 010-5508-3830	장흥 061-862-7787
무안 010-5234-2313	진도 010-3081-5203	보성 061-853-9125	함평 011-641-3189
순천 010-2300-9083	화순 010-2077-6464	광양 010-5604-6981	고흥 010-4656-6293
해남 010-8600-2768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